

장마철 재해예방 취약지 현장 점검

남구청장, 도시철도 공사구간 등
재난 발생 대응 협조체계 구축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 쟁점



김병내 구청장이 22일 장마철을 앞두고 백운광장 주변 아파트 및 주상복합 대형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역 6곳을 현장 점검했다. /남구 제공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민선 8기 시작을 앞두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재해 위험시설을 둘러보는 등 빠른 현장 행보에 나섰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백운광장 주변 아파트 및 주상복합 대형 공사장 4곳과 상수 침수지역인 백운광장 일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 구간 등 재해 취약지역 6곳을 연달아 방문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각 시설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자연재해와 관련해 사전 대비를 강조한 김병내 구청장의 구성 기조에 따른 것으로, 그는 제8회 지방선거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간부회의를 통해 "재해·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책이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진두지휘에 나선 김병내 구청장을 필두로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의 대응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인 안전총괄과는 관내 급경사지 4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붕괴 위험이 있는 D등급 급경사지에 대해 수시 예찰 활동에 돌입했으며, 재난 위험시설 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주택과 등과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관내 곳곳의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장마철 시작 전까지 사전 점검 및 재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다. /임채민 기자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 및 해체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주택건설 현장 6곳과 건물 해체 작업인 진행 중인 옛 KBC 사옥 철거 현장을 포함해 7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 16일 백운광장 주변 공사장에 대한 주민불편해소 민·관 TF팀 회의를 열어 게릴라성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현장과 남구청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별로 비상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긴급 연락체계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임채민 기자

'주민들에 모범' 남구민상 후보자 공모

봉사·효행 등 5개 부문

광주시 남구는 개정 27주년을 맞아 22만 주민들의 본보기로 남구민상을 수상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22일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남구의 명예를 드높인 주민에게 영예로운 남구민상을 시상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효행,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발전, 교육 등 5개 부문에 대한 수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자격 조건은 3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가운데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먼저 사회·봉사 부문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신이 뚜렷하고, 투철한 봉사활동 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사람이다. 효행 부문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바탕으로 윤리 및 예의, 도덕에 표상이 되는 주민이

며, 문화·예술·체육 부문에서는 전통문화 계승 및 예술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거나 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의 명예를 선명한 주민을 추천 받는다.

또 지역사회발전 부문에서는 기업 활동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며, 교육 부문에서는 인재육성을 비롯해 문화교육특구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구청장 및 17개 동 동장,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로도 추천서를 감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7월 18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결정여부와 공적내용을 검토해 8월 초순경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개정 27주년 남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를 수여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에서 제외된다. /임채민 기자

청소년도서관, 매주 토·일 영화 상영

광주시 남구 청소년도서관에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주말 영화상영관을 2년만에 다시 문을 열어 관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다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봉선동에 위치한 청소년도서관에서는 이달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에 주말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6월에 선보인 상영작은 '마다카스키의 펭귄'과 '마이펫의 이중생활2' 등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했으며, 오는 25·26일에는 '도리를 찾아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7월에도 토·일요일마다 주말 영화를 상영함과 동시에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을 '여름방학 특선 영화' 상영 기간으로 정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 4편을 연달아 선보인다.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되는 7월말 즈음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 영화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소년도서관 주말 영화상영관은 영화 관람을 원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며 "특히 관람자들의 연령 및 영화 선호도를 파악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영화 상영으로 주민 문화 사랑방으로도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양림동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힘 모은다

학용품 구입비·장학금 지급
밥상·실버카 등 복지 나눔



양림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나눔 사업을 펼친다. /남구 제공

광주시 남구는 양림동 주민,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아이들의 학업 향상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다채로운 민·관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양림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가슴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관내 저소득 가정 어르신과 자녀를 비롯해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나눔 사업을 펼친다.

먼저 양림동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취약계층 가정 아이들의 학업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학습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체득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가는 과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곳 주민들은 지난 7월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과 잡초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 취약계층 아동 30명에게 각각 5만원 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오는 7월에는 초·중·고교 학생 30명에게 장학금 1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밥상 차림을 위한 반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주민들이 필요한 반찬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반찬가게와 협약을 맺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등 30가구에 세대당 5만원 쿠폰을 지급한 상태이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해 외출하기를 꺼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 보조기구인 실버카 15대를 구입해 23일께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채민 기자

남구, 예비 사회적기업 맞춤형 교육

이질클래스 교육·컨설팅 등

광주시 남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자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남구는 22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 전 준비교육 및 예비 사회적 기업가 발굴·양성을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질클래스'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질클래스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5달간 집중적으로 펼쳐지며, 관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 활동가와 청년, 퇴직자 등 주민 3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첫 단계 과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한달간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과정 및 심화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소규모 그룹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협동조합 사업모델 수립과 사업 계획서 작성 과정,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또 기초과정 및 심화교육을 완료한 주민들은 7월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학습 및 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이 협동조합 설립 등의 결실을 맺도록 8월부터 10월까지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해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검토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채민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